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최 준비 완료

시, 개막식·시상식·드론축구 경기장 등 점검… 글로벌 드론 축제 손님맞이 ‘이상 무’

전주시가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펼쳐지는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FIDA World Cup Jeonju 2025)’을 안전하고 모범적인 국제 행사로 만들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무리했다.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조직위원회(공동 조직위원장 우범기 전주시장·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회장)는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교통·주차 대책 △불법주차장 단속 △행사장 주변 가로수 및 녹지 정비 △숙박·식품위생업소 관리 △정소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 등 대회 운영에 핵심적인 분야에 대한 준비를 모두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회 공동 조직위원장이인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회장은 대회를 사흘 앞둔 이날 △개막식이 펼쳐질 전주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대형돛(TFS돛트) 및 드론축구 특설 경기장 △시상식 야외무대 행사장 △2025 Buy전주 GOGO페스티벌 행사장 △전주합계장터 행사장 △시 문화예술평영장 등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관람석과 선수단 대기 공간, 출입 통로, 주차장 등 주요 시설을 직접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공동 조직위원장이인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회장은 대회를 사흘 앞둔 22일 개막식이 펼쳐질 전주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등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살피고, 대회 기간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운영사무국도 확인했다.

시는 이번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사장 곳곳에 운수교통봉사대와 모범운전자, 공무원 서포터즈 드론 지기 등을 배치해 주차를 관리하고,

개막식 당일에는 전주더메이호텔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해 경기장 주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회 참가선수단에게 쾌적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수송버스의 이동 동선인 고속도로 진입로와 전주역, 고속버스터미널, 전주한옥마을 일대에

대한 가치치기 및 예초작업을 실시하고, 행사장 인근에는 꽃길을 만들어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했다.

여기에 시는 선수단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도록 숙박업소 357곳과 식품위생업소 280곳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으며,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친절 교육도 병행했다.

이와 함께 시는 경기장 인파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청결한 환경에서 머물 수 있도록 대회 기간 자체 가동 처리반을 편성해 순찰 강화 및 폐기물 집중 수거하여 깨끗한 경기장 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대회 기간 응급처치 및 후송을 위한 의료지원반과 급급차를 배치하고,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가동해 선수단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에서 열리는 첫 드론축구월드컵은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역사적인 대회가 될 것”이라며 “전주를 찾은 모든 분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자활사업 수행 ‘우수’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서 2개 자활센터 우수기관 선정

전주시가 저소득 주민들의 근로 참여를 돕는 자활사업을 잘 수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전주지역자활센터와 덕진지역자활센터 등 전주지역 2개 자활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아침 결식 개선 시범사업인 ‘가족애찬 사업단’과 청년 창업 지원 프로젝트인 ‘청년 카페사장님 만들기 사업’이 각각 지역특화사업 장려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자활사업 실적에 종합 심사해 역량 강화와 맞춤형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228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전주지역자활센터와 덕진지역자활센터는 총 30개 사업장에서 500여 명의 저소득 주민이 근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은 전주시 주요 정책과 연계돼 시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노인 280여 명 밀반찬 배달) △1화용 기저귀 줄이기 사업(천기저귀 렌탈·세탁)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다화용컵 대여·세척 사업 등이 추진되며 환경과 복지를 아우르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번 수상한 전주지역자활센터의 ‘가족애찬 사업단’은 아침 결식 청소년과 저소득 가구에 건강한 식사를 지원해 학습 집중력 향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했으며, 덕진지역자활센터의 ‘청년 카페사장님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에게 창업 경험과 역량을 제공해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줬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가족센터는 지난 20일 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전주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등 500여 명이 함께 하는 ‘와다다다 축제’를 개최했다.

전주시,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 만든다

10월 9일까지 명절 종합대책 가동

전주시가 개천절부터 추석,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7일간의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시민들과 귀성객, 관광객이 안전하고 따뜻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가동기로 했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9일까지 약 2주간 △시민 안전 편의 증진 △민생경제 활성화

△비상진료 체계 확립 △종합대책 시민홍보 등 4대 분야 12가지 추진과제로 된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시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시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 분야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연휴 기간 시민 불편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장보기 행사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추진해 내수경기 활성화와 진작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또 추석 전 행정안전부·전북특별자치도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불가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가격 표시 및 원산지 표시제와 추석 명절 성수품 과대포장 여부 등 현장 지도점검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시는 추석 연휴 기간 비상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소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및 감염병 발생 대비 비상대응반을 운영함으로써 연휴 기간 빈틈없는 의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은 유선 안내 및 누리집, 스마트폰,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 위해 ‘2025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눔행사’를 추진하여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권희성 기자

이국·최명권 전주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각각 가결

전주시의회가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와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국 의원(덕진, 팔복, 송천2동)이 대표발의한 전주시종이팩분리배출활성화에관한조례안과 최명권 의원(송천1동)이 대표발의한 전주시난임극복지원에관한조례안을 각각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종이팩분리배출활성화에관한조례안은 재활용 가치가 높은 종이팩의 체계적 분리배출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책무 및 활성화 계획의 수립 △종이팩 분리배출 촉진 시책추진 및 활성화 사업 추진 △교육·홍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포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국 의원은 “종이팩은 재활용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분리되



이국 의원 최명권 의원

지 않아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조례를 통해 시민 참여 확대와 자원순환의 사회 실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난임극복지원에관한조례안은 저출생·고령화 심화에 따른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정의 책무 △지원 대상 및 난임극복 지원 △중복지원 제한 및 지원종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명권 의원은 “전주시가 난임 치료와 지원에 적극 나서 출산 친화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다문화가족·외국인 함께하는 ‘와다다다 축제’ 개최

전주시가족센터, 500여명 참여 화합·문화 교류의 장 열려

전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해경)는 지난 20일 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전주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등 500여 명이 함께하는 ‘와다다다 축제’를 개최했다.

‘와~ 다양한 구성원이 다 함께 다모이는 축제’라는 의미를 가진 이번 축제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화합하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

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체험 부스를 시작으로 △어린이 뮤지컬 공연 △비빔밥 퍼포먼스 △줌바댄스 공연 등이 이어졌다.

또 오후 시간에는 명랑운동회와 EDM 뮤직 페스티벌, 통기타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누구나 찾고, 머물고, 살고 싶은 곳.
전북특별자치도의 가치를 높이고
당신의 꿈을 담아 전북의 미래를 짓습니다

도민행복 파트너
전북개발공사

스마트 첨단산업도시 개발

전북 지역균형발전 선도

친환경 주거안정도시건설

다지텔 열린 소통 경영

전북개발공사